



가톨릭 마산

부활 제5주일

2024년 4월 28일

제2615호



어린 포도나무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사도 9,26-31

화 답 송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제 2 독 서 1요한 3,18-2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 음 요한 15,1-8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김효 베르나르도 신부

교포사목(미국 뎀피스)

“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과 자비로써 우리를 위해 굳건하게 서 계시는 참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인내로써 머물러 있을 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내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찬미 예수님!

‘참을 인 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의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참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입니다. 우리는 삶이나 신앙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이는 잘 극복해서 공동체에 녹아드는 모습으로, 어떤 이는 참지 못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이들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필요로 하는데, 그 관계 안에서 인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가 인생이든, 신앙이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요한 15,1-17)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붙어 있다’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10번 정도 사용되어 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2독서에도 3번 사용되어 집니다.

그리스어로 ‘메노’는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라틴 교부들은 그리스어 ‘메노’를 라틴어 ‘페르세베라레’로 옮겼습니다. ‘페르세베라레’의 일차적 의미는 ‘인내하다’입니다. ‘머무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메노’를 ‘인내하다’라는 뜻의 ‘페르세베라레’로 번역한 것은 타당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붙어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삶이나 신앙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청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루카 11,9-10)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중에서도 그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걸림돌들이 존재합니다. 그 걸림돌에는 분명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다들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마태 26,25 참조)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방해요소들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더욱더 머무르고 다가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기 성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성직자, 수도자로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평신도는 나의 기도와 희생과 봉사가 내 만족감과 드러냄을 위한 것인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성찰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과 자비로써 우리를 위해 굳건하게 서 계시는 참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인내로써 머물러 있을 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시기의 끝자락에 있지만, 매일 신앙 안에서 주님 부활의 체험을 통하여 언제나 기쁨과 평화가 넘쳐흐르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말씀 봉사자로서 느끼는 복음의 힘



박령숙 엘리사벳/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사천본당 성경 공부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어 사도로 준비시키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하셨듯이 성경 교육 봉사자들도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몇 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파견되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마중물의 역할을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도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바가지의 물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한 학기, 한 학기 거의 열 손가락을 채울 만큼 산을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학교에 다녔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 ‘배우고 때맞추어 그것을 익히다.’ 불역열호不亦說乎 ‘역시 기쁘지 않은가?’ 공자와 제자들의 문답을 모은 책 논어의 ‘학이學而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때때로, 시간 나는 대로가 아닌 때에 맞춰 반복하여 그것을 복습하다 보면 배운 것이 익숙해져서 마음 안에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연하지만 공부에 뜻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이것만큼 큰 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공자의 말처럼 살아있는 말씀 공부 역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4,17)

성경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들어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성경 공부가 지식만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성경 공부는 말씀을 찾고 하느님을 만나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듣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공부가 더없이 좋은 저이지만 더 깊이 침잠해서 성경을 읽고 주님 뜻을 생각하고, 묵상과 함께 교안을 작성하면서 풀리지 않은 난제를 피하지 않고 어떻게든 찾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새로운 각도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때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버거울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사자의 길을 건지 않았다면 성경을 대충 또는 가볍게 훑어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얼마만큼 몰랐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 조금씩 복음적 삶을 배우고 지향하며 삶을 변화하려 노력하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도, 그 삶이 감사한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혼자 누리며 독차지하지 않고 성경공부반 수강생들과 함께하면서 기쁨은 배가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매주 수업하기 며칠 전, 단톡방을 통해 미리 찾아들 성경 말씀과 미리 읽어 들 성경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날 수업 후에는 단톡방을 통해 성경공부반 수강생들 스스로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거나 소감을 작성하기도 하고, 수업에 사용했던 ppt를 찍어 올리며 생각을 나누고 공감도 합니다. 숨겨진 가능성을 격려하며 소통하는 모습들이 참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과 어려움 중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실 주님을 알아 모실 수 있도록 여력이 있을 때까지 공부하겠다는 공부반 수강생들에게 말씀이 기쁨이 되도록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 충분히 배려하고, 교감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천천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2024년 1학기 개강미사



너를 보냈느니라

고광주 에스더 소설가/ 가톨릭문인회

언젠가 읽은 짧은 글이 기억났습니다.

한 부자 여자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채로 백화점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백화점 밖에는 한눈에 봐도 가난으로 찌들어 초라한 행색의 꼬질꼬질한 아이가 있었죠. 그녀는 불쌍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상한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하느님! 왜 저런 가난한 아이들이 생기게 하셨나요? 왜 그들은 부유하지 못할까요?” 하느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유한 여자가 거리에서 신발가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난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여자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니?” 아이가 “하느님께 저 신발을 우리 가족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6명이나 되는데 하느님께서 그럴 능력이 될까요?” 부유한 여자는 아이와 함께 신발가게에 들어가 아이의 신발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발까지 사줬답니다. 여자는 “하느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란다. 하느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거라.”라고 말합니다.

아! 그 두 여자는 같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쳤습니다. 첫 이야기에 등장한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응답 주셨던 그 순간 자신이 들고 있던 쇼핑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보았을 것 같습니다. 오롯이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한 선물이었을 것이고 눈앞에 서 있는 그 가난한 아이의 것은 없었겠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하느님의 뜻을 모르고 산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의 여자가 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올렸겠죠. 얼마 후 그녀는 신발가게 앞에서 소년을 만났겠지요. ‘너를 보냈다’라고 하신 하느님께 응답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실행의 시간입니다. 그녀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대로 소년을 대했을 겁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나쁜 일에 대해 ‘너희의 하느님은 뭐 하고 계시는데 세상이 이리 될 정도로 내버려 두냐?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사실 저도 ‘하느님께서는 왜 일이 저 지경이 되도록 지켜보고만 계실까?’ 하는 질문만을 하곤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여자의 행동을 생각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위해 제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거겠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부족한 저이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사 기도해 봅니다. 아직은 처음의 여자보다도 못한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두 번째 여자의 모습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제18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 **마 감:** 9월 30일(월)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원고는 워드로 A4 용지에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할 것





꿀벌의 대화는 춤이다.

김수만 필립보/ 교구 가톨릭농민회장

꿀벌의 역사는 구석기시대로 추정하며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 “여성의 꿀벌 사냥” 벽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시조 통명성왕때부터 꿀벌을 사육했다고 한다.

꿀벌은 사회적 곤충이라 한다. 여왕벌을 중심으로 수벌, 일벌 등으로 구분하며 일벌의 경우, 육아를 담당, 청소담당, 보초담당, 작업담당 등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또한 벌의 대화는 몸짓과 날갯짓으로 춤을 추며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가 될 때 행동에 옮긴다.

꿀벌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익함은 환경정화부터 벌꿀, 화분,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등 인체에 유익한 물질을 공급한다.

꿀벌이 주는 선물 중 벌꿀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맛있는 것의 상징인 ‘꿀’자를 사용했다.

꿀 사과, 꿀 참외, 꿀 수박, 꿀 바나나 등 맛있는 것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옛날에 벌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벌약’으로 불렸다.

벌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80%~85%를 차지하며 17종의 아미노산 그리고 10~12가지 함유된 종의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방향성 물질과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살아있는 식품’이라 한다.

벌꿀이 우리 인체에 유익함을 주는 요소들은 강력한 에너지 및 영양 공급과 심장 및 혈관기능 강화, 위장기능 강화, 살균작용, 탈수작용 등으로 구분한다.

벌꿀의 포도당과 과당은 허약한 심장기능을 강화시켜 주며 모세혈관 강화와 빈혈에 효과가 있는 엽산, 비타민B6, 비타민K 등이 있다. 그리고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불필요한 세균 제거와 탄수화물의 소화 분화작용이 있다. 또한 상처 난 곳에 꿀을 바르면 화농 방지와 화상에 바르면 물집이 잡히지 않고 빠른 치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듯 꿀벌은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으나, 기후위기로 인해 유럽은 약 30%, 우리나라는 약 18% 정도 꿀벌이 줄어들었으며, 각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는 꿀벌의 멸종 위기를 논하고 있다.

꿀벌이 멸종하면 농작물의 75%가 수정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고 한다.

이러한 기후위기에서 우리 건강과 환경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꿀벌을 지키고, 꿀벌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꿀도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양봉장





기억할 선종 사제
이재철(아드리아노) 신부
2006년 5월 3일

故 이재철 아드리아노 신부 18주기 추모미사
일시: 4월 28일(주일) 14:00
장소: 고성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교구장 서리 동정

의정부 교구장 착좌미사

일시: 5월 2일(목) 14:00
장소: 일산킨텍스

유영봉 야고보 몬시뇰 금경축 미사 및 행사

일시: 5월 12일(주일) 10:30
장소: 사파동성당

본당 재정업무 지도방문

일시: 5월 2일(목)
본당: 가음동/ 대방동/ 사파동

교구/본당

신앙대학

일시: 5월 4일(토)~5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5월 5일(주일) 10:30
장소: 용잠성당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첫째 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2621·6034(신연희 에스텔)

파티마성모발현 107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

일시: 5월 13일(월)
장소: 평화의성당(임진각)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2621·6034(신연희 에스텔)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첫째 주(수) 19:30 회원동성당
창원: 첫째 주(월) 19:30 사파동성당
진해: 첫째 주(월) 10:00 해군성당
비대면: 첫째 주(월) 20:00 화상연결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5월 수어미사 안내

일시: 5월 5일(주일) 10:30/ 장소: 완월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5월 수어미사는 후원회원 모집 미사로 진행되며, 이날 15:00 남성동성당 미사는 없습니다.

223차 ME주말 안내

일시: 5월 24일(금)~26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접수(문자발송-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황인성(골디아노) 010·4570·3392
김은수(소피아) 010·9234·8171

기 타

교리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기도학교

일시: 5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20:00
문의: 010·3405·7665(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피정

일시: 5월 3일(금) 18:00~4일(토) 17:00 1박 2일

장소: 청주 초정성령회관
강사: 김완식 요셉, 김현우 신부, 김재덕 신부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음악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재속 예수성심전교회 회원 모집

모임 및 피정: 매월 첫 주일 10:00
장소: 부산 장전동 예수성심전교수녀원
대상: 예수성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분(만 55세 이하 남녀 신자)
문의: 010·2312·2396(재속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모집: 3월부터 5월 29일(수)까지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
과정: 지원기(1년) 교육 이수 후 입회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010·5230·1420, 010·8782·9520

프란치스코 청년회(유프라) 모집

모집: 상시
대상: 신자 및 비신자로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만 18세~35세 미만의 미혼 남녀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청년(유프라) 010·4559·5134

소성리 평화미사 안내

일시: 4월 29일(월) 14:00
출발: 10:30(창원 만남의 광장)
장소: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
모집: 40명
문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5·249·7168
▶차량 경유지 시간 및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4월 29일(월) 19:00	중앙동성당	제4강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양창우 요셉 신부(성골분반 외방선교회)		010·5247·9900
진주시구	4월 29일(월) 19:00	신안동성당	성령 구원의 은혜	이은진 도미니코 신부(교구 성사전담)		010·3846·198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영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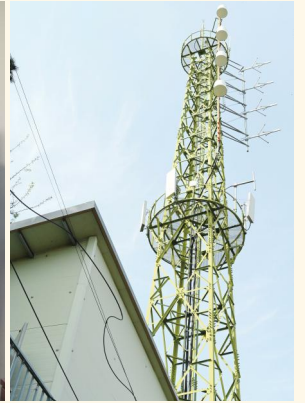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제주, 전국 167곳, 일본,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제주, 전국 167곳-36만 원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아키타,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각 3박 4일-120만 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에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마산중계소 축복식



사진출처: 가톨릭평화방송·신문

가톨릭평화방송 마산중계소 축복식이 4월 12일 진행되었다. 이날 축복식에는 주용민 리노 신부(교구 사무처장), 최봉원 야고보 신부(성사전담)를 비롯하여 조정래 시몬 신부(가톨릭평화방송 사장)와 평화방송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고 개소를 축하하였다. 중계소는 창원시 의창구 정렬대로 14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신 주파수는 FM 라디오 101.7MHz이다. 가청권역은 창원시와 함안, 창녕, 밀양, 양산, 김해, 거제, 고성이다. 교구 신자들은 라디오를 통해서도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교구시설협의회 아동분과 '으랏차차!! 신나는 운동회' 개최



4월 10일 교구청 잔디밭에서 마산교구시설협의회아동분과 연합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 이후 처음 진행된 연합체육대회로 마산, 창원, 진주, 고성의 7개 지역아동센터와 2개의 한울타리 아동 170여 명이 참석하여 모둠별 대항전 및 단체 게임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라 어색해하기도 하였지만 서로 도와가며, 게임을 즐기는 동안 처음의 서먹함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024년 마산ME 본당 대표 간담회



WWME 마산협의회(대표 사제: 강철현 미카엘 신부, 대표 부부: 공석원 스테파노, 강진향 헬레나)에서 주최한 '2024년 마산 ME 본당 대표 간담회'가 4월 13일 교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각 본당ME 가족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교구 내 24개 본당ME 대표 부부 및 총무 부부 등 61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마산ME 대표 사제인 강철현 신부의 '부부특강'과 '영화와 함께하는 느낌 대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부들은 ME 주말을 통해 더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때 본당ME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부부가 함께하는 기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향심기도란 어떤 기도인가요? 4

윤행도 가롤로 신부/ 월영본당 주임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들에게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마태 23,26)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치(설거지) 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잔의 속뿐만 아니라 겉까지도 깨끗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잔 속, 즉 우리의 내면(무의식)을 정화하면 잔의 겉, 즉 행동이나 말은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뜻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내면을 정화하지 않으면 행동이나 말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마태 5,39-40)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마태 5,44-45)

성격이 매우 급하고 직선적이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결코 참을 수 없는 저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성인들이나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왔고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이려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향심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 일 년이 지나고 십 년이 지나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나 친척 중 누군가가 저에게 하대 말을 했을 때 기도하기 전에는 “이 양반(놈) 봐라!”라는 생각과 함께 불쾌한 감정이 불쑥 올라왔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교우님들 중 저에게 반감을 보이고 미사에 나오지 않거나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찾아가서 용서를 청하거나 전화로 사과드리기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관상기도를 통해 내면의 정화가 일어나면 켜켜이 쌓여 있던 우리의 거짓자아가 치유되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참자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잃어버리고 있던 본래의 ‘나’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저의 눈빛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소에도 날카롭고 강렬한 편이지만 열을 받았을 때는 그야말로 레이저 빛이 뿜어져 나오는, 언젠가 교구청 앞 건널목에서 시비가 붙었던 그 사람이 “저 새끼 눈깔 봐라!”라고 했던 그런 눈빛인데 이번에 부임한 월영본당 교우님이 “참 인자해 보입니다.”라고 하십니다. 지난 22년간의 향심기도가 저의 눈빛마저 변화시킨 것이지요.

저의 내면이 정화되면 제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모습까지도 변화되어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본래의 모습, 참 좋은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조금씩 조금씩 좋은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근원적인 힘은 관상기도(향심기도)입니다.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루카 11,1) 하고 말합니다.

이때 ‘기도’에 사용된 단어가 아람어 ‘shela’(샬루)인데, ‘자신을 열어 놓는 것’ ‘하느님의 현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우리가 관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관상기도는 예수님 시대 때부터 보편적으로 행해졌지만 15~17세기를 거치면서 신학의 발전과 문예부흥, 인간 이성의 강조 등등 여러 가지 시대적, 교회 내적 상황과 맞물려 정신 기도는 생각을 주로 하는 추리적 묵상, 의지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하는 정감적 기도, 하느님에게서 주입된 은총이 우세한 관상으로 구분됩니다. 추리적 묵상과 정감적 기도와 관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다른 행위가 아니라, 각각 다른 목표와 방법과 목적을 갖는 별개의 기도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과정이 완전히 분리된 개별 단위로 나뉘지면서 관상이 극소수에게 제한된 비상한 은총이라는 잘못된 개념이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 관상은 대중(일반 신자들)을 떠나 봉쇄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